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뒹눴습니다.”

(루카1,44)

■ 미사 전례

- 제 1독서: 미카 5,1-4ㄱ
- 화 답 송: (악보 참조)
- 제 2독서: 히브 10,5-10
- 복음 환호송: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복 음 : 루카 1,39-45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전례 봉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일	해설		독서
	금주	07:00	김 미카엘	3구역	2구역		수	고 세실리아	신비로운 장미 Pr
		11:00	한 베드로	5반	1반		목	정 엘리사벳	성령 기도회
다음주		07:00	백 로즈마리	4구역	2구역	일	금	박 안토니아	금요 성경반
		11:00	박 안토니아	1반	2반				



성경의 인물 85 진리를 위면한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이었다. 식민지 정책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종교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사형권한과 집행권 등 중요한 권한은 여전히 총독에게만 있었다. 총독의 가장 큰 역할은 당연히 반란 없이 식민지를 잘 통치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대사제 가야파는 예수를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도록 데려왔다. 빌라도는 솔직히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간간이 들리는 소문 때문에 호기심은 없지 않았다. 빌라도는 귀찮았지만 대사제의 요청이므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맡았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란 막강한 지위로 유대를 다스렸지만 골치 아픈 종교문제에는 별로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실제로 로마 통치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의회의원들과 율법학자, 대사제를 대동하고 뒤따랐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속에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레 동안 몸이 더러워진다는 관습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는 밤샘 심문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예수는 품위가 있어 보였다. 빌라도는 귀찮은 듯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에 재판을 해달라는 거요? 당신들에게도 최고 의회가 있지 않소? 거시서 당신들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면 되는 것 아니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꼭 십자가형에 처해야 할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습니다.” 하며 상황하게 늘어놓았다.

빌라도는 예수를 조심스럽게 심문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 말처럼,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소? 그리고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언반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예수께서 간단히 대답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요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빌라도는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로마의 실정법을 거스른 확증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을 비롯해 종교문제를 많이 다루었지만 이번처럼 애매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빌라도는 전혀 예수를 처형할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빌라도는 은근히 예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눈치 챈 유대의 종교지도자들도 압력을 은근히 행사했다. “만약 총독께서 예수를 풀어 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총독의 행동을 로마 황제에게 항의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의 반역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풀어 준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겠소?”

“말조심하시오? 직무유기라니...” 화가 난 빌라도는 베란다에 나갔다. 밖에서는 군중들의 거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어서 죽이시오.” 예수를 석방할 경우 군중들은 소요라도 일으킬 태세였다.

빌라도에게는 무엇보다 군중들이 시끄러우면 좋을 게 없었다.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에 무능한 총독으로 비취질 수도 있고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었다.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도대체 왜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빌라도는 진퇴양난이었다. 총독의 기본 임무는 로마제국의 통치 기반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에게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처할 죄목을 찾을 수는 없었다. 빌라도도 양심적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쉽게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로마 황제의 적이라고 고발하며 당장 죽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빌라도는 마침내 경비병을 시켜 물 한 대야를 뜨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 그는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없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 주었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나 지위, 능력을 기피할 때 종종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빌라도는 진리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자리만을 보존하려는 정치가로 양심을 거슬러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했다.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처세 방법이다. 빌라도는 지도자가 자기자리에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체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주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서 역사의식 없이 보신주의에 몸을 맡겼던 빌라도는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역사가 불행해지는 건 승리는 성공이요, 실패는 죄가 된다는 잘못된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을 때이다.

<평화신문, 제649호(2001년 10월 28일자),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전담)>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sangoyo@hanmail.net • 종신부제: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 franciscoye@yahoo.com

성삼 소식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6:30 전야행사 (주일학교, 구역반) 오후 9:00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구유경배 및 예물봉헌)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오전 7시,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2018 성탄 전야 행사

- 일시: 12월 24일(월) 오후 6:15
- 전야행사를 위한 도네이션(현금, 물품) 받습니다.
- 문의: 정재형(그레고리오) ☎(213)820.9733
- ※ 성탄 전야 행사 총연습 12월 23일(주일) 오후 2:00 성당

☞ 성탄 트리 기도 카드

- 12월 23일(주일) 미사 전후에 성당 입구에 있는 “기도 카드”를 “기도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제대위에 있는 성탄 트리에 걸어드립니다.

☞ 성당 임시 휴일

- 12월 27일(목) 저녁 미사 없습니다.

☞ 금요 성경반(은빛 성경) 방학

- 12월 28일(금) ~ 2019년 1월 11일(금) 까지

☞ 故 현기호(시몬) 신부님 33주기 추모

- 12월 30일(주일)

☞ 성삼 시네마

- 12월 성삼 시네마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故김덕산(요한)의 장례미사와 연도에 함께하시어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 장례 안내

- 망 자: 故장숙자 향년 93세
- 연 도: 12월 26일(수) 저녁 7:30 미사 후
- 유 가 족: 장경구(다니엘), 2구역1반

환영합니다

- ♥ 정다희(아네스), 정정교 가족
서울교구, 방배동성당에서 4구역5반
- ♥ 서상준(안셀모), 이해자(보나)가족
서울교구 성수동성당에서 4구역5반
- ♥ 김미라(헤르미오나)가족
서울교구 가락동성당에서 5구역1반
- ♥ 송진숙(글라라)
산호세교구 한국순교자성당에서 4구역5반
- ♥ 선혜선(카타리나)
대구교구 매호성당에서 2구역5반

☞ 대림시기 성경 쓰기

- 복음: 마태오 복음 필사
- 대상: 가족, 개인
- 마감일: 12월 23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성탄 꽃 봉헌

- 성탄 대축일에 제대 장식을 위한 꽃 봉헌 하실 분은 수녀원, 제대회에 연락 바랍니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 학생 복사단 피정

- 일시: 12월 29일(토) 오전 9:30 ~ 오후 4:30
- 장소: 성당

☞ 주일학교/ 성삼 한국학교 방학

- 주일학교: 12월 23일(일)~2019년 1월 6일(일)
- 한국학교: 12월 22일(토)~12월 29일(토)

☞ 성삼 한국 학교 2학기 학생 모집

- 개학 및 등록: 2019년 1월 5일(토) 오전 9:00
- 수업시간: 오전 9:30 ~ 오후 12:30
- 대상: 유치부~12학년
- 수업료: 한자녀 \$175. 두자녀 \$300. 세자녀 \$425.
(간식비, 교재비, 특활반 포함)
- 문의: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유바실라 수녀님 ☎323-828-8876

☞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12월 16일	\$11.75	누계	\$914.71
---------	---------	----	----------

중식봉사	금주	4구역 2반	미역국	다음주	4구역 3반
------	----	--------	-----	-----	--------

우리들의 정성 (2018. 12. 16 현재)

교무금	10,540.00	교무금 / 건축헌금 / 감사헌금 (39명)	
주일 헌금	2,882.00	강 진, 김 경운, 김경찬, 김로미, 김명자, 김성택, 노승균, 박순희, 서진환, 송희원, 신순자, 신주한, 안진환, 양효준, 여지홍, 연강선, 예영해, 우인주, 이길웅, 이달근, 이상모, 이용일, 이윤석, 이종구, 이창현, 이호제, 장인덕, 정명옥, 정종문, 조은아, 조태오, 주태근, 최명희, 최수찬, 최 호, 한경구, 한재춘, 허성동, 허일환,	
건축 헌금	100.00		
감사 헌금	4,000.00		
광고비	1,050.00		

본당살림



고려 여행사 LA 8가와 웨스턴 코너 since 1972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데오 몰	Global Financial & Insurance Life/IRA/사업체/건물/종업원상해/그룹건강 Juliana Jin Kim 818-640-3992 pncglobal@gmail.com Lic#0G10657	SAHARA -HOTEL & SPA Tel: 213-700-9630 66700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info@saharahotelandspace.com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애실)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변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황창연신부님의 평창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김재영 베로니카 (213) 905-9282 *수익금은 "예수성심 피정 집" 건립 기금으로 쓰입니다.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글라라	장영화 Piano Studio •음대·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MM Degree •대학교수직 및 피아노스튜디오 20년 경험 •각종 피아노 콩쿨 다수 입상 •MTAC & SYMP 멤버 Studio (818) 400-1343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소화 한의원 (체질에 맞는 침, 약) ☎ 213-739-3113 3054 W. 8th st. #202 (8가와 뉴햄프셔 코너) 원장 : 박 데레사
리틀도쿄홈마트 생활가전, 의류, 건강, 주방용품 3가+알라메다, 마켓2층 206호 (213)620-0605, (213)280-7911 서 안토니오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48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글러리아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개
Hankook Plumbing 가정,식당,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곳은 뚫어드리고 뚫린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친정 김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가주/한남/프라자/도레미 김 아오스당 (213)623-7088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부동산 케이티 한(카타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 하겠습니다. C:213-800-1700 SK Realtor
에어콘 수리 및 설치 최효선(요안나) 626-804-4178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TBS COPIER SCAN FAX 오 마태오 213-248-1338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